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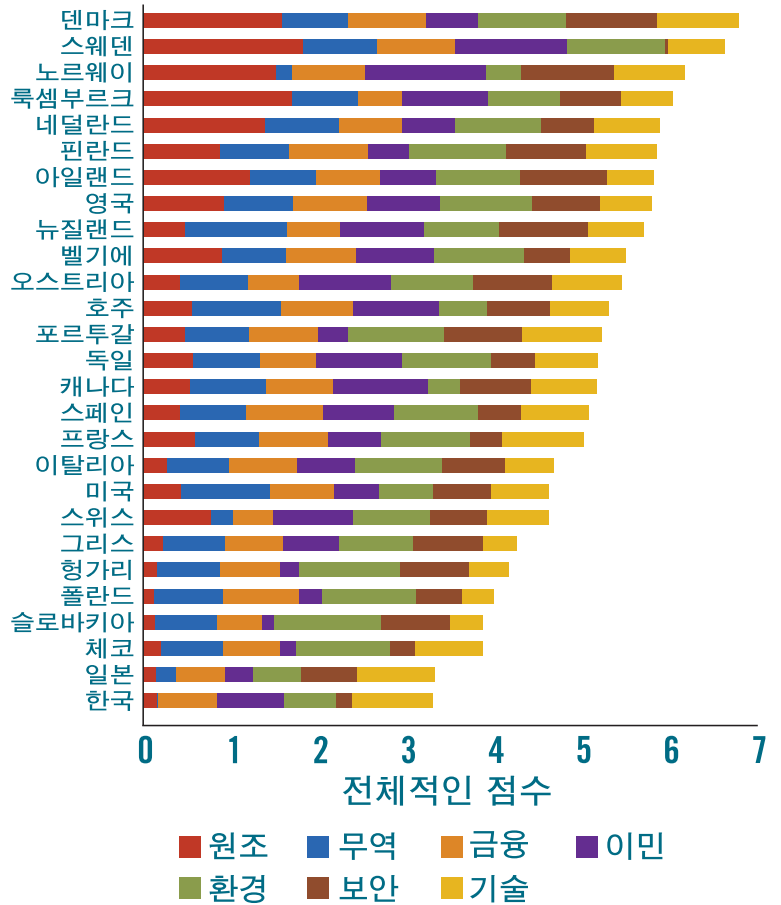
개발공헌지수(CDI)는 빈곤 국가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기여도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7개국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CDI는 대외 원조 흐름의 표준적 비교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원조, 무역, 금융, 이민, 환경, 보안, 기술 등의 7가지 정책 분야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평가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2013년도 CDI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gdev.org/cdi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2013년도 CDI 성과

- 2013년도 전체적인 순위: 26
- 2013년도 전체적인 점수: 3.3
- 2008년 이후 변동 사항: 0.1(2013년의 방법 사용)

한국은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26위에 기록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성적은 모든 CDI 국가 중에서 개발도상국 수출에 대한 장벽이 높고 대외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가 매우 작으며 국제 평화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어업 보조금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소수의 장애만을 부과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보호로 인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발전에 대한 한국의 가장 큰 공헌은 국내에서의 기술혁신 지원과 첨단 기술의 해외 보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많은 수의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개발공헌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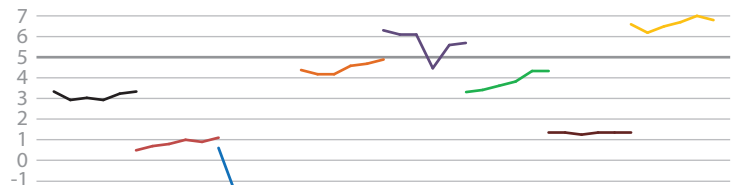


한국

전체 원조 무역 금융 이민
환경 보안 기술



한국 시간에 따른 변화, 2008-2013 (5 = 2012 평균)



원조

원조 내용은 원조 수량만큼이나 중요하므로 CDI는 부채 서비스를 차감하고 수혜국가가 공여국가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계” 지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가산하지만 비교적 통치가 잘 된 수혜국가에 대한 지원에 가산점을 부여하며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로 빈곤한 정부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GDP 조정 규모로 총 지원금을 측정합니다.

■ 점수: 1.1

■ 순위: 23

약점

- 경제 규모에 비해 순수 지원액이 적음(0.12%, 순위: 24)
- 연계 또는 부분 연계 지원의 비율이 높음(49.28%, 순위: 20)
- 프로젝트 급증 허용, 프로젝트 평균 크기가 소규모임(순위: 25)

무역

국제 무역은 수 세기 동안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CDI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대한 경제 부국의 무역 장벽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CDI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서비스 구입을 막는 고비용의 수입 프로세스 및 규제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점수: -1.2

■ 순위: 27

강점

- 농업 보조금이 적음(수입가의 -0.2%에 해당하는 관세와 동일, 순위: 2)
- 선적 컨테이너 수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음(컨테이너당 \$680, 순위: 2)
- 선적 컨테이너 수입 일수가 짧음(3일, 순위: 2)
- 밀에 대한 관세 낮음(수입가의 1.9%, 순위: 3)
- 설탕에 대한 관세 낮음(수입가의 14.1%, 순위: 4)

약점

- 농산품에 대한 관세 높음(수입가의 111.5%, 순위: 27)
- 비농산품에 대한 관세 높음(수입가의 111.3%, 순위: 27)
- 쌀에 대한 관세 높음(수입가의 315.4%, 순위: 26)
- 유제품에 대한 관세 높음(수입가의 74.9%, 순위: 23)
- 기타 육류에 대한 관세 높음(수입가의 25.9%, 순위: 24)

금융

빈곤 국가에 대한 경제 부국의 투자로 기술 이전, 경영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업과 은행의 금융 비밀을 허용하는 정책은 해외에서의 불법 활동과 금융 흐름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CDI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지원하고 자국에서의 금융 거래 시 투명성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점수: 4.9

■ 순위: 17

강점

- 정치적 위험부담 보험 기관은 광범위한 보장범위를 제공하며 인권, 노동권 및 환경권 침해에 대한 잠정적 프로젝트를 심사합니다.
- 뇌물 및 부패 관행을 식별하는 강력한 지원
-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기회를 찾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제공

약점

- 채광 산업 투명성 캠페인에 대한 참여 및 리더십 부족
- 관할 내에서의 불법 금융 거래를 방지하는 데 소수의 규정만을 적용함으로써 금융 비밀 지수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 획득 (순위: 17)

이민

빈곤 국가에서 경제 부국으로의 인력 이동은 비숙련 이민자에게 일자리, 수입 및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해외 이민자가 자국으로 송금하는 자금의 흐름과 이민자가 귀국할 때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 점수: 5.7

■ 순위: 13

강점

-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의 비율 높음(94.9%, 순위: 2)
- 한국에 입국하는 개발도상국의 이민자 수가 많음(인구 점유율에 따른 순위: 8)

약점

- 인도주의적 위기 기간에 소수의 난민만 수용(순위: 27)

환경

경제 부국은 희귀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반면 빈곤 국가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 악화에 가장 취약하므로 CDI는 지구의 기후, 수산업,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 점수: 4.3
- 순위: 22

강점

- 석유세 높음(리터당 \$1.25, 순위: 8)

약점

- 열대 목재 수입 의존도 높음(1인당 \$16.17, 순위: 25)
- 어업 보조금 많음(1인당 \$3.40, 순위: 24)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많음(14.5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 순위: 23)
- 생물 다양성에 관한 다국간 환경 협약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을 잘 준수하지 않음(순위: 22)

보안

보안은 개발의 필수 조건이므로 CDI는 국제적인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기여와 강력한 인도주의적 중재, 전 세계 항로의 군사적 보호 및 국제 안보 조약 참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CDI는 또한 빈곤하며 민주화가 덜 된 정부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해 벌점을 부과합니다.

- 점수: 1.3
- 순위: 26

약점

- 지난 10년 동안 UN을 포함한 국제적 평화유지 활동 및 인도주의적 중재에 대한 인적 또는 재정적 기여도가 낮음(GDP 규모 기준 순위: 27)
- 지뢰금지조약 및 확산탄금지협약(CCM)을 비준하지 않았음
- 무기 수출 데이터 미공개

기술

경제 부국은 새로운 기술의 창출 및 보급을 통해 성장에 기여합니다. CDI는 빈곤 국가에 대한 신기술 보급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적 재산권 체제에 벌점을 부과하고 R&D에 대한 정부 지원을 측정함으로써 이를 평가합니다.

- 점수: 6.8
- 순위: 1

강점

- R&D에 대한 상당한 정부 지원(순위: 1)
- R&D에 대한 고액의 정부 지출(GDP 규모 기준 순위: 2)
- 기업의 R&D에 대해 고액의 세금 보조금(순위: 7)
- 연구 목적의 특허 예외 허용
- 사용되지 않는 특허 취소

약점

- 동식물 번종에 대한 특허 허용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허용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혁신의 흐름을 제한하는 양자 간 무역 협정("TRIPS Plus" 조치)의 지적재산권 확대 추진
- 저작권을 가진 디지털 자료 암호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반우회 기술에 엄격한 제한 부여

상세 정보

2013년도 개발공헌지수의 전체 버전은 cgdev.org/cdi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형 그래프 도구를 이용하여 수치를 찾아보거나 추가 간행물 및 배경 논문을 볼 수 있으며, 데이터 및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CDI의 조사방법을 자세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발공헌순위, 2013

전체	국가	원조	무역	금융	이민	환경	보안	기술	변동 사항 2012-2013
1	덴마크	3	12	2	18	12	2	2	0
2	스웨덴	1	6	2	2	3	27	17	0
3	노르웨이	4	26	7	1	26	1	6	0
4	룩셈부르크	2	15	25	7	21	15	21	0
5	네덜란드	5	5	16	19	13	19	12	0
5	핀란드	9	8	1	21	4	5	7	1
7	아일랜드	6	14	14	16	15	4	23	2
7	영국	7	7	6	11	8	12	20	-1
9	뉴질랜드	15	1	22	8	19	3	19	-3
10	벨기에	8	18	9	10	9	20	18	4
10	오스트리아	18	10	23	4	17	6	8	0
12	호주	13	2	8	6	24	14	16	-2
13	포르투갈	16	17	10	22	5	7	4	-1
13	독일	12	11	21	5	10	22	13	4
13	캐나다	14	4	13	3	27	9	11	1
16	스페인	19	13	4	12	16	23	9	-4
17	프랑스	11	16	10	17	11	24	3	-1
18	이탈리아	20	20	12	14	14	13	22	0
19	미국	17	3	15	20	23	17	15	1
19	스위스	10	24	27	9	18	16	14	0
21	그리스	21	23	19	15	20	8	25	0
22	헝가리	24	19	18	25	2	11	24	0
23	폴란드	27	9	5	24	6	21	27	0
24	슬로바키아	26	22	25	27	1	10	26	1
24	체코	22	21	20	26	7	25	10	0
26	일본	25	25	24	23	25	18	5	0
26	한국	23	27	17	13	22	26	1	1

□ = 상위 1/3 □ = 중간 1/3 □ = 하위 1/3

이 표는 27개국의 CDI 순위와 함께 7가지 정책 분야에서의 점수를 보여 줍니다. 마지막 열은 2013년의 방법을 사용하여 2012년 이래 각 국가별 전체 순위 변화를 보여 줍니다.

CDI 소개

개발공헌지수(CDI)는 2003년부터 매년 정책 커뮤니티와의 활동적인 관계 유지 및 열성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의 빈곤 퇴치 및 불평등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독립 정책 연구소인 세계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에 의해 편찬되고 있습니다. CGD Europe의 이사 겸 선임 연구원인 Owen Barder가 GGD의 선임 연구원 겸 명예 교수인 David Roodman의 이전 작업을 기반으로 지수를 총괄합니다. Petra Krylova는 CDI의 조정자입니다. 협력자에는 무역 관련 William R. Cline, 투자 관련 Theodore H. Moran, 이민 관련 Jeanne Batalova, Kimberly A. Hamilton, 및 Elizabeth Grieco, 환경 관련 Amy Cassara 및 Daniel Prager, 보안 관련 Michael E. O'Hanlon, Adriana Lins de Albuquerque, Mark Stoker 및 Jason Alderwick, 기술 관련 Keith Maskus 및 Walter Park가 포함됩니다. 이 지수는 CDI 컨소시엄에 의해 지원됩니다.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세계 번영을 위한 독립 연구 및 실천 이념

www.cgdev.org

1800 Massachusetts Ave., NW • Washington DC 20036, USA

Tel: 202.416.4000 • Fax: 202.416.4050

London: c/o BMGF, 80-100 Victoria Street, London, SW1E 5JL, UK

